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6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 확정

교육위원회에서는 교회학교의 '96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각 부서별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주일 당회의 승인을 얻었다.

교회학교의 이번 여름행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주제로 부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6일(화)에 탁아부의 교사 수련회를 시작으로 17일(수)에 유치부의 일일 여름성경학교, 17일(수)부터 2일간은 유년부 · 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가 각각 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충북영동에서 갖는 중등부 수련회는 7월 22일(월)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며, 고등부 수련회는 노량동산(노량진교회 수양관)에서 8월 8일(목)부터 2박 3일간, 대학부 수련회는 8월 7일(수) 청평에서 3박 4일간 개최된다.



개별학교는 매주일 집회에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성교육의 좋은 기회가 된다.

14일(수)부터 2박 3일간 수련회를 갖는 청년부와 8월 8일(목)부터 1박 2일간 수련회를 갖는 소망부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랑부도 일일성경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회학교 외에도 찬양대 혹은 전도회나 교

구별로 행사들을 마련하여 집중적인 영성훈련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방학과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많은 부서가 각기 놓여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별도의 여름행사를 갖지 않는 장년부는 지난 16일부터 한달간 특강을 통해 이단종파연구를 하고 있다. 장년부에서는 오는 7월 7일까지 매주일 12시 30분부터 1층예배실에서 실시하는 특강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매주일 갖는 집회는 한정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각 교회학교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가장 큰 행사로 꼽고 있다. 따라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여름행사를 앞두고 각 부서의 준비모임이 활발하다. 여름성경학교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총회가 실시하는 교사강습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으며 프로그램과 진행을 위한 준비모임과 기도회가 부서별로 계속될 예정이다.

교회학교의 여름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 성찬식 거행

다음 주일(7월 7일)은 96맥추감사절로 지낸다.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낮 I · II · III부

◇ 맥추감사절은? 맥추절(출23:16)

은 유월절(레23:5-8), 초막절(레23:34-44)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들고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날로 삼았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로도 불리우는 이날은 무교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현대의 도시인에게 있어서 밀과 보리의 추수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어서 맥추감사절의 중요성을 간파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특별히 1996년도 6개월 동안 우리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을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배 시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교회학교별로 집회시간에 축하행사를 갖고, 저녁 찬양예배시간에는 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감사절 축하행사를 갖는다.

◆ 교회학교의 여름행사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탁아부	이영희 집사	7월 16일(화) ~ 교사수련회	교회당
유치부	홍영록 전도사	7월 17일(수)	교회당
유년부	이상진 목사	7월 17일(수) ~ 18일(목), 2일간	교회당
초등부	박종상 교역사	7월 17일(수) ~ 18일(목), 2일간	교회당
중등부	박귀환 목사	7월 22일(월) ~ 25일(목), 3박 4일간	충북영동 선희은행연수원
고등부	김명현 목사	8월 8일(목) ~ 10일(토), 2박 3일간	노량진교회 수양관
대학부	원호 목사	8월 7일(수) ~ 10일(토), 3박 4일간	청평가든 회의실
청년부	이만열 전도사	8월 14일(수) ~ 16일(금), 2박 3일간	미정
장년부	김영한 목사	6월 16일 ~ 7월 7일, 매주일 특강	교회당
소망부	이종윤 목사	8월 8일(목) ~ 9일(금), 1박 2일간	미정
사랑부	임진태 전도사	미정	미정

창세기
강해



성도의 양심

(창세기 42장 6 ~ 16절)

이종운 목사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간 아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경제적 궁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치 못한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1. 경제적 궁핍이 잠든 양심을 깨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죄로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름이나 애굽이라는 말만 나오면 기억이 되살아나 그들을 괴롭혔습니다(창42:1). 그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물질적 궁핍이 없었더라면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음식을 구하려 애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밀어 넣어 회개케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게 하시고 애굽 외에는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길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도 회개케 하시려고 궁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부해지면 대체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 육신적 고통이 악한 양심을 새롭게 한다

경제적인 궁핍이 잠든 양심을 깨우듯이 육신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 악한 양심을 새롭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손에서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무척 심문합니다(42:6~7).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양

심이 잠을 깨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돌맹이와 몽둥이를 들어 때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심문은 형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의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 하에 요셉이 한 말은 형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 형들의 아픔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 세겟사람들이 그들의 누이 다나를 겁탈했습니다. 그 보복으로 형제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살해했고, 야곱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를 망하게 하였도다”(창34:30)라고 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화와 동침했습니다(창35:22).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고 동침하여 다말은 임신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같은 형들은 신사적으로 대할 인물이 못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정착할 수 없도록 총리로서 혼을 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보호했으며 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형들의 잠든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들에 관한 요셉의 꿈을 회상해 보아야 합니다. 22년 전 요셉의 소년시절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것에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 꿈이 지금 요셉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3. 환경이 병든 양심을 치료한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아버지의 첩자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금 형들에게 말했습니다(42:9, 4). 사실은 형들을 돕기 위해 요셉이 온 것이라 했습니다.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지 첩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17절). 요셉은 형

들의 양심에 힘을 가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형들은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문하면서 ‘죄값’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경제적 궁핍을 통해, 육체적 고통을 통해,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우리 죄를 폭로하며 회개케 합니다.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약속도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며 의를 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묻어 놓은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말씀 위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곧 요셉의 형들의 죄와 같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형제를 형제라 부르기가 두렵게 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 회개하면 예수님은 매우 은혜로우신 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 순례자 컬럼 ✦

“진실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끊임 없이 피로를 느낀다는 것이다. 거짓과 불의를 감추고 자기 본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겉과 속이 같고 모순된 갈등이나 허세를 부리기 위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감동시킨다.

이런 진실한 사람들에 의해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왔고 지금도 우리사회는 이런 진실한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진실한 사람들은 내면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에 넘친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과 타협함으로서 자신의 도덕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교사강습회에 다녀와서

여름성경학교에 모여들 해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성기원 (초등부 교사)

“새싹처럼 솟아라
나무처럼 자라라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님이 칭찬하네
세상은 우리세상
너도나도 나가자
씩씩하게 자라서
예수이름 빛내자 ~”

하루의 피로로 지친 몸을 이
끌고 강습회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찬양과 율동을 배우느
라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로 가득
했다.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손을
흔들고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이
조금은 우습기도 했지만 강사의
몸짓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허리
를 꼰꼰히 세우고 배우기에 열중
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 아이 같아

그 모습에서 은혜를 받기도 했다.
다가올 여름성경학교에서 선
보일 각종 프로그램과 성경공부,
찬양과 율동, 특별 순서 등의 진
행을 위한 강의가 24일(월), 25
일(화), 27(목) 삼일간 저녁마다
있었다. 여러교회가 연합한 것이
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도 낮설
고 분위기도 얼떨떨하고, 늦은
시각까지 계속되니 피곤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속에
는 사랑하는 우리반 아이들의 해
맑은 눈망울이 가득 모여들었다.
은아와 보라, 정우, 하나 그리고
기윤이....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
니 새로운 힘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였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이다. 우리
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살아가야한다는 것
을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
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
와하고 고민하는 때가 많다. 이러
한 내게 이번 강습회는 어린 아이
의 모습을 통하여 쉽고 간단한 방
법들을 일깨워주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성경학
교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꿈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십사
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그날이 너무도 기대
된다.

권사회수련회 · 봉사자위로회에 다녀와서

봉사하는 성도가 하늘의 상을 잃지 않으니



이영주 (집사, 4교구)

권사님들과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많은 권사님
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두들 소
풍 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듯
즐겁고 기쁜 모습들이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몸이 불편하심에
도 불구하고 열심히 함께 행동하
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달리는 버스 속에서는 작은 부
흥회가 열렸습니다. 마이크를 잡
으시면 너나 할 것 없이 찬송의
스타들이셨습니다.

섬김과 관용, 그리고 이해가 하
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라

고, 주님을 닮아가자고 강의하신
이종운 목사님은 선지자를 대접
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
는다고 하신 성경말씀을 인용하
시며 그간 목회자신학세미나와
김치세미나 기간 동안 수고하신
권사님들의 노고를 갚아 주시기
를 하나님께 기원하셨습니다.

온천장에서는 여기가 에덴동
산이구나 싶게 꾸밈없는 모습으
로 서로 등을 닦아주며 더 열심히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질 정도로 아쉬운 순간들이
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봉사일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권사님들. 몸
이 불편하셔도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 모른다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존경심
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행차에 혹여
불편한 점이 있을까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목사님 · 장로님들
께 권사님들은 한결같이 “예배
당 건축의 난제들이 많은 와중에
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니 황송할 뿐”이라고 하셨
습니다.

그간의 봉사에 대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만 영광을 돌리는 권사님들에게
서 저는 신앙의 어머니의 모습을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6월의 새벽

96홍해작전 승전보고

96홍해작전을 승전케 하신 하
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
자”라는 주제로 6월 6일에 시작
하여 23일까지 18일간 실시된 96
홍해작전은

1. 기도의 벽돌을 나도 함께 쌓
는다
2. 능력의 지팡이로 장애물을 제
거한다
3.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전을 세
운다

라는 세가지 행동강령을 세우고
정진해 왔습니다.

또한 7가지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로 주의 전을 세우기 위해 새
벽마다 기도예 행했습니다.

성도들은 개인기도제목들 기
도요청카드에 작성하여 기도의
동역자들과 나누면서 믿음의 간
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체험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도의 정의와 중요성,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응답의
확신을 말씀들 통해 조명해 보면
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좇아 한마음으
로 뜨겁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현충일과 6·25가 있는 6월.
나라와 민족, 복음화된 통일조국
을 위한 기도로 새벽을 갈랐습
니다.

동원참모부에서는 각 교구 간
사와 지역장, 다락방장들과의 유
기적인 연락으로 성도들의 참여
를 독려하여 이번 홍해작전에
참여한 인원은 하루평균 354명,
연인원 6,369명이었으며 차량은
하루평균 107대, 연 1,917대였습

니다. 21일에는 금식을 선포하
고 해 있는 동안 온 성도가 금식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금식일을
제외하곤 매일 아침 간단한 식
사를 마련하여 교제의 장을 펴
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 주신 이
종운 목사님, 홍해작전의 계획에
서 시행까지 일사불란하게 실무
를 담당한 참모진 그리고 봉사의
현장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승전보고를 드립니다.

1996년 6월 23일
박철훈 장로(홍해작전 부참모장)

생활 속의 단상

용서

박용현 (집사, 1교구)

“일곱 번 용서하고
또

일흔 번씩 일곱번을 용서하여라”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

이웃끼리 용서받고 살기에

또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

하물며 둘이 한몸 이룬 부부사이에

용서 못할 뭘 있을까!

용서가 있는 곳에

믿음과 화평이 있고

소망과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참사랑이 깃든다.

용서가 있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며

우리는 한없이 용서함이 마땅하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삶의 지혜됨이라

- 마태복음 18장 21 ~ 22절을 읽다가

■ 교우 동정 ■

* 조문기 성도(2교구)는 6월 15일(토) 삼성동에
'바스타임' 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김만용 집사(4교구)는 6월 20일(목) 경북 영
주시에 '새소망치과' 를 확장개업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

* 이계홍 집사(5교구)는 6월 25일(화) 역삼동
에 '중국성' 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김삼철 집사(4교구)는 한미우호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연세대 언더우드
박사, 김창준 미 연방하원의원, 故 론 브라운
미 상무장관 유족에게 한미우호상을 수여하
고 6월 25일(화)에 귀국했다.

* 하원일 성도(1교구 하영수 집사 장남)는 6
월 29일(토)에 유학차 도미했다.

* 이영기 장로(7교구)는 7월 1일(월)에 '대원
통산' 개업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 오정수 장로(1교구)는 7월 2일(화)에 'LG중
앙가전' 사업장 확장감사예배를 드린다.

■길동무

선진시민의식

요즈음 우리 사회엔 우리 나라가 이미 선
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
다.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충
족되어야 할 것인가? 경제력이나 교육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했다 해서 선진
국이 되는 것인가. 자동차수출 왕국이 되었
다고 자랑은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
니는 시민 의식은 아직도 선진국 시민과는
멀리 있지 않은가. 교통사고가 세계 제 1위
라면 아무래도 아직은 선진국 운운하는 것
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 수준이 문제
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체면을
중시해 왔다. 그래서 개인도덕은 어느 민족
보다 앞서 있고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공
중도덕 특히 남이 보지 않는 상황에선 야만
인처럼 행동하는 예를 수없이 보고 있지 않
은가.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어느 나라에서 백
주에 길가는 여자를 붙잡아 인신매매를 하
며 고아를 해외로 수출하여 돈을 챙기는 백
성이 있던가. 국정을 의논하고 백성의 귀감

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신성하다는 의
정단상에서 먹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나
라를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장애자의
날 행사는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장애자
의 고충은 외면하고 자기 이기심만 충족하
려 한다면, 그리고 백성이든 나라든 죽든지
망하든지 개의치 않는다면 선진국이라 부
르기엔 아직은 거북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시민은 나의 자유가 소중하듯 남
의 인권과 자유도 소중히 여겨 줄 수 있어
야 한다. 아무도 무시당하거나 인격에 침해
를 당하지 아니하며 조화와 질서가 법테두
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나라를 선진국
이라 한다. 경제적 부를 아무리 누린다해도
분배를 정당하게 할 수 없고 고층아파트에
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산다해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지 못하고 남을 억울
하게 하거나 인격적 권위를 침해한다면 선
진국 시민의 마음자세가 아니다. 내 집 마
당은 밟고 다닐 수 없다며 더불어 살아야
할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또한
문제다. 특히 집단 이기심은 선진시민의 마
음 자세가 아니거늘 아직도 우리 사회의
구성구석에는 이같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
지 않은가. 믿는 우리들이 먼저 선진 시민
의식을 갖고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선진국
이 되도록 하자.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환영회는 새가족 여러분이 교우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6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주십시오.

* 6월의 새가족 *

전창훈 강창분 김용제 김옥락 김소진 박채린 박일한 최문수 강경신 구덕희 이혜경
김정숙 윤옥임 유민현 방혜원 손민희 홍순곤 유수희 이선화 윤영명 유성룡 신근자
신현관 황혜자 김순희 하현미 최임수 노인숙 김용원 지민정 방찬호 김민자 정영자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공개방송 출연 우리교회
유년부 · 초등부 어린이들이
극동방송의 공개방송 “우리는
주의 어린이”에 출연한다. 방
송은 7월 1일(월)부터 일주일
간이며 오후 5시에 시작된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2.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3. 새가족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4. 투병 중인 성도들과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